

제일모직, 3/4분기 영업이익 증가

한화증권, 691억원으로 7.1% 늘어 ... 전자재료는 상승 반전 기대

한화증권은 10월25일 제일모직에 대해 자회사 가치 등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<매수>와 목표주가 6만7000원을 제시했다.

차홍선 연구원은 “제일모직의 3/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.8% 증가한 7919억원, 영업이익은 7.1% 증가한 691억원, 순이익은 24.3% 증가한 481억원”이라며 “고유가에도 케미칼부문 영업이익은 4.7% 증가했으며, 앞으로 성장사업인 전자재료의 매출액은 48.5% 증가한 1160억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16.1% 감소했다”고 설명했다.

또 “2008년 2/4분기 완공될 합성수지 PC(Polycarbonate) 플랜트 증설, 전자재료 이익의 상승 반전, 자회사 가치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”면서 “PC 투자금액은 1447억원이며 생산능력은 6만5000톤”이라고 밝혔다.

아울러 “편광필름의 본격적인 매출액 증가에 따라 4/4분기 전자재료 부문의 영업이익은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되며, 보유하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, 에이스디지텍, 삼성정밀화학, 삼성석유화학 등의 자산가치가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10/25>